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UNDP, 2004년 4억6500만톤으로 93% 증가 ... 세계는 289억8300만톤

한국이 200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월27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07/2008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1990년에 비해 28% 늘어난 289억8300만톤이었다.

한국은 2004년 4억65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세계 9위에 올려졌다. 한국인 1명당 9.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셈이다. 1990년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93% 가량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60억4600만톤)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50억7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15억 2천400만톤)와 인디아(13억4200만톤), 일본(12억5700만톤), 독일(8억800만톤)이 뒤를 이었다.

7위인 캐나다와 8위인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6억3900만톤, 5억8700만톤이었으며, 한국에 이어 10위를 차지한 이태리 배출량은 4억5000만톤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위권 국가들 중 1990년에 비해 배출량이 줄어든 나라는 러시아(23% 감소)와 독일(18% 감소) 뿐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8>